

社 說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거는 기대

최초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 추진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제1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공식 지정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계 혜택과 투자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초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 추진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제1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공식 지정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계 혜택과 투자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작년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선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법 개정 이후 선정된 첫 번째 사례다.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는 상생 요소, 사업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한다.

정부는 작년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선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법 개정 이후 선정된 첫 번째 사례다.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는 상생 요소, 사업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

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하고, 3년동안 약 5천754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2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공장이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2022년부터 연간 1만대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생산할 방침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칼럼 배철현 고전문헌학자

코로나19가 현대인에 던진 근본적 물음

21세기 인류는 자신이 이룬 성과에 도취돼 있었다. 자신의 오감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쾌락만이 선이고 행복이라 주장했다. 20세기 말에 새롭게 발견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은 새로운 시대를 구가할 발판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쾌락을 강화하고 세뇌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조지 오웰이 우려한 '빅 브라더'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그런 쾌락을 전달하는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다. 이들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쥐고 현대인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다. 미디어는 물질을 숭배하고 과소비가 미덕이라고 설교한다. 인간은 육체적인 건강과 쾌락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면, 별끝들이 별집의 작은 틈을 막기 위해 수집한 수액도 털썩한다. 남극의 고래나 펭귄이 먹이인 크릴도 씹을이해 복용한다. 인간은 별이나 펭귄의 건축 도구와 먹이도 훔친다.

현대인들에게 쾌락이 선이다. 우리는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에 중독돼 있다. 중독은 속성상 더 강렬한 중독을 원한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하고 즐기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삼켜 버리는 블랙홀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우리는 그런 상상을 극대화한 문화를 침팬지라고 찬양하며, 그런 착각을 행동이나 물건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천재라고 떠받든다.

그런 착각은 2020년 1월부터 비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기원이 아직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왕관' 모양의 이상한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구에서 공생하고 있는 동물들과 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최적의 생존을 보장하는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20세기 인류는 거룩한 경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폭군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는 인간들에게 '왕관'을 쓴 모양의 바이러스를 선사했다. 6개월째 접어든 이 전염병은 우리를 아직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 '무증상 감염'이라는 신기한 전염으로 우리를 한참 괴롭힐 작정이다. 인류가 쾌락 문화를 근거한 생활을 절제하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구축하지 않는 한, 이 바이러스는 항존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40만 명 이상이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망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대 대중문화는 대면, 토론, 그리고 승복의 기술이다. 현대인들은 멋진 건물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치열하게 개진하고 토론해 배우며, 모두

가 수긍할 수 있는 차선의 의견을 선택하고 승복하는 문화를 구축해왔다. 스톤헨지, 이스터섬 석상, 피라미드, 지구라트, 예루살렘, 메카, 콜로세움, 타지마할과 같은 유적들은 대면문화의 총아들이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들을 방문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인류는 또한 이 염원을 담은 건축물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에 만들었다. 박물관, 미술관, 놀이동산, 종교시설은 인간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쾌락을 위한 공간들이다.

현대인들은 멀리 유적이나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지불한다. 그들이 교양인으로 행세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해외 박물관 한두 곳 정도는 방문해야 한다. 서양국가들이 18~19세기 제국이었던 때,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로부터 노획한 유물들을 모아 박물관을 만들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기어코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 페르가몬박물관, 바티칸박물관 그리고 에르미타주박물관과 같은 명소를 방문하며 인간들이 남긴 천재적인 작품을 보고 감탄했다.

인류는 이미 20세기 말에,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혁명인 '인터넷'을 발견했다. 현대인들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근대가 발견한

이성주의와 낭만주의가 구축한 문화에서 안주하고 있었다. 19세기 말 이미 철학과 예술 분야에서 근대의 틀을 깨는 인물들이 등장해 인류에게 새로운 문법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니체는 서양의 두 기둥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넘어서는 현대철학을 말하기 시작했고, 프로이트는 인간관계와 소통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다윈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운이 좋은 유인원이란 사실을 알렸다.

20세기 초 인류는 현대를 시작했지만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인류는 여전히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던지지 못했다. 철학, 문학,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탈현대'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 시도들은 근대의 문법을 벗어내기 위한 반동일 뿐이다.

현대가 시작한 시점은 2020년 1월에 시작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을 쾌락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현대 문명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해 보라고 촉구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면 모임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해 습관적인 말을 삼가고 온전한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에머슨, 소로, 니체, 카뮈, 사르트르, 피카소, 로스코, 자코메티와 천재들이 주장했다는 '자기극복'이 현대정신이 아닐까? 지구의 중요한 일원이자 자산인 인간이 창조해야 할 현대 문화의 모습은 무엇인가?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용가스렌지 안전수칙 준수하자

야외 나들이객들이 휴대용가스렌지를 사용하여 가족 등 지인들과 삼삼오오 둘러 앉아 고기 등을 구워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즐거워야 할 야외 나들이가 휴대용가스렌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상 등 부상으로 이어질 때 그 안타까움이 크다.

휴대용가스렌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버너부분의 크기에 맞는 조리용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너 부분보다 지나치게 큰 용기를 사용

해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가 복사열로 용기의 내부압력이 상승해 용기 폭발로 인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다.

그 밖에도 휴대용가스렌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2대의 휴대용 가스렌지를 연결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불꽃이 부탄가스 쪽을 향하지 않도록 배관막이를 이용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루미늄 포일을 감은 석쇠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조리 중 부탄가스 용기를 화기 주변에 두지 말고 사용 후 버려야 보관해야 한다.

휴대용가스렌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거운 나들이가 지을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선근/보성소방서 소방위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